

3. 진압군의 출동과 진압과정

1) 반란군 토벌사령부의 설치

광주의 제4연대 부연대장 박기병 소령은 20일 새벽 1시경 광주 8관구 경찰청에게 여수사태에 대한 연락을 받고 제2대대의 1개 중대병력을 먼저 긴급 출동시켰다. 당시 광주의 5여단장 김상겸 대령은 제주도 경비사령관으로 부임하여 아직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참모장 오덕준 중령은 여수 14연대의 출동을 독려하기 위해 여수에 출장 중이었고, 제4연대장 이성가 중령도 서울에 출장 중이었다. 따라서 14연대의 반란소식을 접한 14연대 부연대장은 시급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박기병 소령은 우선 총사령부에 보고하는 한편, 미고문관과 협의하여 즉시 비상소집을 하여 예하 부대를 비상대기시키고, 1개 중대를 차출하여 학구를 경유하여 순천으로 진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출동부대가 화순을 거쳐 순천에 도착한 것은 오전 10시경이었고, 이 부대는 순천에서 반란군과 교전을 벌이지 않고 있다가 반란군에 합세하였다. 출동한 이 부대에 남로당과 연결된 하사관과 병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순천에 도착하자마자 장교들을 사살하고 반란군에 합류해버렸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 동료였던 반란군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다는 심정적 요인도 함께 작용하고 있었다.

한편 20일 새벽, 철도경찰대의 경비전화로 여수 14연대의 반란소식이 서울에 전해지자 당국에서도 반란군들을 진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주한 미군사고문단장인 로버츠 장군은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하였다. 국방장관 이범석을 비롯하여 오전 9시에 국방부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국방부 참모장 채병덕, 육군참모부장 정일권, 정보국장 백선엽 등이 참석한 대책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우선 현지실정을 파악하기 위해 채병덕이 지휘하는 선견대를 광주에 파견하여 사태를 파악하게 하는 것이었다. 현지보고를 받은 뒤 미군사고문관인 하우스만 대위는 21일 오후에 특별반을 이끌고 광주에 도착하였다. 그는 반란진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젊은 장교였다. 육군총사령부는 10월 21일 토벌사령부를 설치하고 사령관에 송호성 준장을 임명한 후 21일 광주에 파견함으로써 본격적인 반군토벌작전계획이 수립되었다. 이와 더불어 20일 오전 11시 30분 국방부장관 이범석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수사건의 발발배경을 “14연대장에 대한 체포로 인해 일어났다.”고 발표하고, 국군당국의 이에 대한 조치 및 경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상당히 긴 내용이지만 당시의 상황을 정부당국에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되기 때문에 전문을 인용한다.

전남여수에 있는 국군 제4연대의 반란봉기가 있어 방금 광주 등지에서는 폭도와 이를 진압하려는 국군 사이에 맹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① 사건발생경과

전남 여수에 우리 국군 제14연대가 주둔하고 있는 20일 상오 2시경 공산주의계열의 오랫동안의 책동과 음모로써 반란이 발생되었다. 처음에는 약 40명에 가까운 사병이 무기고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는 교묘한 선동과 위협으로써 일부분 병사를 선동시켜 야반에 다른 병사를 무기로 위협하고 장교 대부분을 살해한 후 곧 여수에 있는 치안 관계 철도경찰, 일반 경찰을 공격하였는데, 동일 상오 10시경에는 여수를 거의 다 점령하였다. 그리고 반란군은 그 지방의 공산주의자들과 합하여 또 철도시설을 점령하여 순천행 학생통근 열차 6량에 탑승하여 순천으로 동진 중 역에서 철도경찰과 충돌한 후 지방경찰을 습격하였는데, 이것이 반란 당일인 20일 사태이었다.

② 폭도성질

수작 전에 공산주의자가 극우 정객들과 결탁하여 반국가적 책동으로 수명이 반란을 책동하였다. 불행하게도 군정이 양 전 그 중 한 명이 교묘한 방법으로 국군 소령이 되어 정부전복을 책동하였고, 그 자가 여수 14연대장이 되었던 것인데, 그는 방금 심문을 받고 있는 오동기다. 오는 여수에 가서 기회를 포착하여 단순한 청년들의 심리를 선동하고 극우 진영, 해외에서 돌아온 국내에 있는 반동분자와 간접으로 연결을 취하여, 10월혁명 전후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기습적 반란을 책동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군정이양을 받기 20일 전에 오의 체포로 탄로되었던 것이며, 그후 속속 관련자를 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이 금번 반란의 배경인데, 이에 관련된 자들이 다소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으며, 그 중 혐의가 농후한 1개 대대를 모종의 사명을 주어서 다른 곳으로부터 주동적 책동으로 발동하였던 것이다.¹⁾

③ 반란경과

그리하여 일부는 여수, 순천을 점령하고 학살·방화·약탈을 감행하였다. 전남 광주에 있는 3개 중대를 순천으로 증파하려 하였으나 시간상 거리가 먼 관계로 순천 역시 20일 하오 10시 10분경에 들어온 정보를 보면 반란군에 점령당하고 있지만 또 밤에 들어온 보고에 의하면 순천의 대부분을 점령한 반란군은 오합지졸을 모아서 약 2,000명이 두 길로 나누어서 1중대는 남원으로 또 1중대는 광주로 전진하였던 것이다. 국군은 20일 하오 1시에 비행기로 전방지휘부 인원을 광주에 수송해서 정보 거래시간을 단축시키고, 일방으로는 정보수집의 정확성을 기하여 사태 진정에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한 부대의 보고에 의하여 급한 조치로써 광주 남원에 병력을 급파하여 내습하는 적 세력의 대부분은 격퇴되고, 반군은 주동(主動)으로부터 피동(被動)이 되었으며 반군의 방향은 지리산으로 들어가고 있다.

④ 군당국의 조치

국군은 이것을 사전에 상상하였기 때문에 산악지대에 강력한 군대를 배치하고 남원과 광주서 이남의 폭도를 서남해안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경남 하동 방면으로부터 적의 배후를 기습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하여 순천 여수폭도는 연락이 끊어졌는데 불원간에 반란군을 박멸하고 치안은 회복될 것이다. 폭도들의 죄상은 아직 수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최근 부임한 연대장 이하 수십 명을 학살하였고, 순천에서 경찰 과반수 이상을 학살하였고, 또 일부 양민과 수많은 청년을 살해하고 갖은 잔악한 형벌을 가하고 있으며 건물 파괴, 민간의 모든 것을 약탈·강간을 감행하고 있는데 여수도 순천과 같은 현상에 있다. 이 신인공노할 공산주의 도당의 죄악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극우진영이 시대를 몰각한 이 죄악적 행동을 조장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려 함은 더욱 가증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정의에 입각하여 세계사조에 배합해서 인민의 자유와 평화를 파괴하고 폭동으로써 정치적 기도를 달하려는 이 같은 세력이 자고로 성공한 적이 없다. 이 죄상이 앞날에 전부 폭로되는 날 우리의 대응은 더욱 경계하게 될 것이며 정부는 국가 민족과 자유 평화를 교란하는 도배들의 행동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사태는 급격히 축소되고 진압은 속한 기간 내에 되리라고 확신한다.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한 것은 본관의 책임적 입장에서는 건국전도를 위하여 대단히 미안하고 유감되는 바이지만 그 질에서는 극소수의 불순분자가 계획적으로 기도한 것이니만큼 군은 비교적 단순한 청년들로서 조직되어 있고 방종과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억압하고 있는 까닭에 선동에 민감성을 가지고 있다. 또 속한 시일 내에 철저히 숙청할 것을 확신하는 바이다.²⁾

이처럼 여순사건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정부당국은 당시 15개 연대 약 2만 5,000명의 육군병력 가운데 38선을 방어하는 8개 연대를 제외하고 7개 연대를 여순사건지구에 파견하였다. 육군총사령부는 10월 21일 반군토벌사령관으로 소장 송호성을 임명하고 다음과 같이 토벌대를 구성하였다.³⁾

전투사령관 : 육군준장 송호성
 제2여단장 : 육군대령 원용덕
 제5여단장 : 육군대령 김백일
 비행대장 : 육군대위 김정렬
 수색대장 : 육군대위 강필원

1) 『황주신보』 1948. 10. 22.

2) 『호남신문』 1948. 10. 22.

3)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1, 1967, 459쪽.

작전부대

제3연대 (전주 2개 대대) 연대장 : 중령 이성가

제4연대 (광주 3개 대대) 연대장 : 중령 함준호

제6연대 (대구 1개 대대) 연대장 : 중령 김종갑

제12연대 (군산 3개 대대) 연대장 : 중령 백인기

제15연대 (마산 1개 대대) 연대장 : 중령 최남근

L형 연락기 10대, 장갑차부대 30대

2연대(대전 1개 대대), 5연대(부산 1개 대대)를 추후 투입

이처럼 총 10개 대대병력, 장갑차부대, 항공대를 광주·남원·하동에 집결시켜 같은 날 18시경 반군을 완전 포위하였다. 한편 한국인 장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미군사고문관들이 재편한 제4연대 1개 대대병력이, 순천 점령을 위한 요충지인 학구에서 21일 자정 무렵 반란군과 조우함으로써 진압작전은 시작되었다. 평소에는 14연대를 맡고 있었지만 반란이 발생한 날에는 우연히 광주에 머무르고 있었던 3명의 미군사고문관들이 제4연대 병력과 행동을 같이하고 있었다. 광주를 떠나기 전에 3명의 군사고문관들은 4연대 중대장과 그 지역 경찰서장의 자문을 받아 반란군의 북진을 막을 수 있도록 동천강 하안선을 따라 병력을 배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순천에 도착한 모어 중위는 경찰이 설치한 전투지휘소 근처에서 제4연대 병력을 하차시킨 후 켈소 중위와 트럭을 광주로 돌려보냈다. 모어 중위와 그린바움 중위는 경찰병력과 제4연대 1개 중대병력을 산개시켰고, 순천 시내로 들어오는 길목이 되는 다리를 지키기 위해 하상을 따라 기관총과 여러 가지 자동화기를 배치하여 방어선을 구축했다. 모어 중위는 그 당시 4연대 병사들은 당황하고 있던 상태로, 이는 반란군 병사들이 다리를 건너오는 것을 그냥 내버려두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음식물까지 나누어 먹을 정도였다고 회고한다. 모어 중위와 그린바움 중위가 사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도 전에 방어군들은 동료라고 생각했던 반란군들에게 공격을 받고 살해되었다. 모어는 경찰본서를 방어할 수 있는 정도의 병사들과 경찰관들을 끌어모아보려고 했으나 곧이어 그 시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순천전화국으로 후퇴한 모어와 그린바움은 얼마 남지 않은 방어군으로 그곳을 방어하려 하였으나 이들은 곧바로 반란군에 체포되었다.⁴⁾

전투가 일시 멈추었을 때 두 미군사고문관들은 반란군 병사들에게 항복한다는 확실한 표현으로 백기를 흔들면서 걸어나왔다. 그들은 반란군들에게 체포되었지만 통역관이었던 유창남 상사의 도움으로 선교사의 사택으로 무사히 피신할 수 있었다. 미군사고문관들이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게 된 것은 아직은 당시 반란군들이 미군에 대한 적대의식을 갖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반란군들의 주타격대상은 경찰과 이승만정부였고, 미군에 대한 적개심은 소수의 공산주의자들을 제외한 다수의 반란군들에게는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여순반란 기간에 선교사의 사택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고, 선교사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집에다 성조기를 걸어두고 문밖 출입을 삼가면서 피할 수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반란진압군들의 원래 목표는 광주·남원·하동에서 출동해 반란군의 주요 활동무대인 여수반도를 포위하여 산악지방으로의 도피를 차단하고 섬멸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0일 저녁 7시 45분경 남원에서 출동한 제3연대 1개 대대가 약 1,000명의 반란군과 남원 남쪽에서 조우하여 21일 새벽 5시 30분경 순천 방면으로 후퇴시키기는 했으나 그나마 진압작전에 소극적이었다. 보성 방면에서는 20일 광주에서 파견된 제4연대 2개 중대병력이 보성 북쪽 4km 지점에서 반란군의 매복기습을 받아 서쪽 포위망이 무너졌다. 광양 방면에서는 20일 밤 하동에서 도착한 제15연대 1개 대대가 21일 아침 광양 동쪽 8km 지점 옥곡에서 반란군의 매복기습을 받아 심각한 타격을 받았으며, 연대장 최남근 중령과 제1중대장

4) 존 메릴, 앞의 책, 203쪽에서 재인용.

조시형 소위가 반군에게 포로가 됨으로써 동쪽의 포위망도 무너지고 있었다. 즉, 21일 오후 반군토벌 사령부가 광주에 도착했을 때 진압군 내부에서는 작전진압체계 및 통신의 불비, 지휘능력과 전투능력의 미숙, 인접부대와와의 협동 부족 등과 더불어 일종의 병력붕괴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었다.⁵⁾ 전투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왜냐하면 진압군과 반란군 양쪽에는 몇 개월 전까지 같은 전우였던 병사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22일 오전까지 초기 진압작전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없었기에 따라 정부는 22일 여순지구에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계엄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⁶⁾

본관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하여 10월 22일부터 별명시(別命時)까지 좌기(左記)와 여(如)히 계엄령을 선포함. 만일 위반하는 자는 군법에 의하여 사형 기타에 처함.

첫째, 오후 7시부터 익일(翌日) 아침 7시까지 일절 통행을 금함.

둘째, 옥내외의 집회를 일절 금함.

셋째, 유언비어를 조출(造出)하여 민중을 선동하는 자는 엄벌에 처함.

넷째, 반도의 소재를 알시 본 여단사령부에 보고하며, 만일 반도를 은닉(隱匿)하거나 반도와 밀통(密通)하는 자는 사형에 처함.

다섯째, 반도의 무기 기타 일절 군수품은 본사령부에 반납할 것. 만일 은닉하거나 비장(秘藏)하는 자는 사형에 처함.

여순사건에 대하여 이범석 국무총리 겸 국방장관은 23일 반란군에 고하는 다음과 같은 포고문을 발표하였다.⁷⁾

즉시 투항 귀순하라.

제군은 지금 불행히도 민족적 양심과 군기를 무시하고 일부 그릇된 공산주의자와 음모정치가의 모략적 이용물이 되어 실로 천인공포의 죄과를 이미 범하였고 또 아직도 범하는 중에 있다. 제군은 상관을 살해하였고 관유물을 약탈 또는 방화소설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구한 우리의 다수 동포를 학살하였다.

제군은 정부의 기관을 폭력으로 점령한 후 제군 자신조차 신뢰성이 없고 또 인민이 원치 않는 정치·제도를 강요하고 양민과 어린 학생을 무력으로 규합하여 반란을 발생하였으니 그 반란적 죄상은 국법이 도저히 용서치 못하는 것이다. 관은 즉시 제군의 반란행동을 단시일 내에 진압키 위하여 용감하고도 애국적인 압제적인 병력을 동원하여 북은 남원·곡성, 서는 화순·보성, 동은 하동 방면에서 대부대가 진격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리산과 남해안 일대를 완전포위 봉쇄하는 동시에 일부 병력은 기타 남부해안으로 상륙 중에 있다. 여수는 벌써 회복되고 해군은 행동을 같이하는 수천의 반군이 투하되는 중이다. 제군의 운명은 시간적 문제이다.

제군에게 내리는 국가의 판죄는 필히 준엄 엄격할 것이며 추후의 관용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관은 제군의 대부분이 전도요원한 청년이며 또 단순 무지한 병사이며 행동의 동기도 피동적이었음을 안다. 또 전체가 결코 반도가 아님도 잘 안다. 지금은 제군들도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고 자기들의 행동을 반성한 후 회회하여 눈물로써 심려하고 있는 제군의 부모와 처자와 또는 친척을 생각할 때 본관은 최후로 한 번 제군이 총살당하지 않을 기회의 여유를 주는 것이니 제군은 즉시 반성하여 한 시간이라도 급히 하기의 수단을 취한 후 항거를 중지하고 사죄의 뜻을 표하라. 이것만이 제군이 살아나가는 길이요, 제군의 가족이 바라는 방법이며, 우리 국가가 요구하는 태도이다.

첫째, 제군은 동지와 상의하여 단체로든지 또는 개인 단독으로든지 제군의 양심이 허용치 않는 현재 반란의 지도자를 즉시 총살하고 사죄의 뜻을 표하라.

둘째, 제군이 부득이한 때에는 반군의 폭행에 이용되는 총기, 화약, 탄약 및 기타 군용품은 즉시 파괴한 후 탈주하라.

5) 김점근, 『한국전쟁과 노동당전락』, 박영사, 1983, 199쪽.

6)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460쪽.

7) 『호남신문』 1948. 10. 26.

2) 순천과 인근지역의 탈환작전

진압군 사령부는 최초 탈환목표를 순천으로 정하고 이를 세 방면으로 나누어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전투부대를 편성하였다. 주공격은 김백일 부대를 중심으로 하여 학구에서 순천으로 진격하고, 오덕준 부대는 보성을 경유하여 별교 쪽에서 순천을 공격하며, 최남근 부대는 하동에서 광양을 경유하여 동쪽에서 순천을 공격한다는 것이었다. 반란군을 진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던 학구전투에서 군경진압부대가 반란군의 공격을 물리치고 무사히 방어전을 치름으로써 반란군의 기세는 꺾이게 되었으며, 그 시기부터 전세가 역전되어 반란군이 수세에 몰리기 시작하였다.

순천탈환공격은 군산에서 출동하여 광주에 도착한 병력이 작전을 전개하기 위하여 다시 기차편으로 이리를 경유해 전라선으로 학구 인근에 도착하면서 시작되었으나, 이미 학구 인근에는 제3연대와 4연대의 선발 출동부대가 반란군과 교전 중이었다. 군산에서 출동한 제12연대의 2개 대대(백인엽 소령 지휘)가 학구에서 반란군과 교전하면서 대치하고 있던 3연대·4연대를 지원하여 합동작전을 개시하였다. 진압군의 대규모 반격이 시작되자 반란군은 일부가 투항하고 주력부대는 순천으로 퇴각하였다. 학구가 장악되자 4연대 병력은 학구지역에 계속 잔류하기로 하고 12연대의 주력부대와 3연대 병력은 순천으로 추격하여 오후 3시경 순천 외곽지역에서 반란군과 대치하였다. 4연대 병력을 학구에 잔류시킨 것은 이미 4연대의 일부병력이 반란군과 합류한 상태인데다가, 4연대는 반란을 일으킨 14연대 병력과 얼마 전까지 동료였기 때문에 사상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어서 순천탈환작전에 참여시키지 않기 위해서였다.

22일 오후 3시 제12연대 2개 대대가 순천을 공격을 개시하고 1시간 후 남원 방면에서 도착한 제3연대 1개 대대병력이 가세하였다. 이때 순천은 약 2개 대대의 반란군이 방어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진압군과 약 2시간에 걸친 치열한 전투로 순천을 지키고 있었다. 날이 어두워지자 진압군은 전투를 중지하고 순천 북방입구를 점령한 채 폭동군과 200~300m 사이를 두고 대치했다. 이러한 대치상태에서도 반란군은 선전 혹은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진압군 내부의 붕괴를 유도하고 있었으나 진압군은 동요가 없었다.

이튿날 새벽까지 제2연대 1개 대대, 제4연대 1개 대대, 장갑차부대, 경찰부대로 증강된 진압군은 순천 주변의 산과 이른바 인민군사령부로 되어 있던 동순천역을 일시에 포위하고 박격포사격과 정찰기의 지원을 받으며 장갑차부대를 선두로 총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미 진압군의 총공격을 예상한 반란군은 수나 장비로 보아 대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정규적인 직접대항을 포기하고 산악지역에서 유격전을 감행하기 위해 김지회 등의 반군지휘관과 순천의 주요 좌익간부들로 구성된 주력부대는 이미 광양 방면의 백운산과 지리산 줄기의 인근 산악지대로 도피한 상태였다. 순천읍에는 14연대의 정규병력은 이미 도피하고 총과 죽창으로 무장한 치안대, 민애청원, 학생들만이 치열한 시가전으로 맞서고 있었다. 결국 적은 수의 잔류병사들만이 남아서 저항하고 있었기 때문에 몇 시간에 걸쳐서 시가전을 전개한 결과 진압군은 고립된 병사들의 저항을 손쉽게 무력화할 수 있었다. 전투 결과 해질 무렵에 순천시의 대부분은 진압군들에게 탈환되었지만 밤에는 다시 퇴각하여 시 외곽의 안전한 지역에서 숙영하였다.

증원된 1개 대대병력과 장갑차로 보강된 진압군은 23일 아침 일찍 순천을 다시 공격하였다. 장갑차를 앞세운 진압군은 청년들과 좌익세력의 미미한 저항을 받았지만 이를 쉽게 격퇴하고, 오전 11시경에 순천시 전역을 탈환하고 오후에는 시가지 소탕전을 완료했다. 순천을 완전 점령한 진압군은 1개 대대병력이 장갑차를 앞세우고 여수를 탈환하기 위해 떠나고, 나머지 진압군은 반란에 가담했던 자들을 찾아내기 위해 시내 가옥들을 하나하나 수색하기 시작하였다.

순천에 주둔하였던 진압군은 백운산으로 도피한 반란군을 소탕하기 위하여 2개 대대병력을 광양으로 보냈다. 백운산의 반란군은 진압군을 분산하기 위해 광양읍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교란작전을 펼치면서

산악지방으로 도주하였다. 이들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진압군은 서로 다른 방면에서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서로 적으로 오인한 채 치열한 교전을 벌여 아군끼리 막대한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별교지역도 순천에서 급파된 2개 대대병력의 진압군에게 탈환되었고 이어서 보성지역도 10월 24일 아침에 탈환되었다. 구례와 곡성도 3연대 1개 대대가 순천탈환에 합류하는 과정에서 22일 오전 11시경과 15시경 각각 탈환되었다.

한편 여수에서는 부산에서 파견된 해군부대와 일부 국방경비대 병력이 10월 23일 아침에 육해군 합동으로 여수항구를 통해 상륙하려 했지만 반란군의 반격을 받고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3) 여수와 인근지역의 탈환작전

순천탈환에 성공한 진압군은 광양 방면의 반란군 주력을 섬멸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사건의 진원지인 여수를 탈환하는 동시에 별교·보성 방면의 폭동군을 진압하려 했다. 이에 따라 순천에서는 제2연대와 제4연대 1개 대대를 잔류시켜 경비를 담당케 하였다. 광양 방면 공격에는 제12연대 2개 대대와 하동에서 재편성한 제15연대의 2개 대대로 광양 부근을 협격하여 반군주력을 철저히 추격토벌케 하였다. 또한 여수 공격을 위해서는 제3연대 1개 대대와 장갑차부대를 준비하였으며, 별교·보성 방면 공격에는 제4연대의 1개 대대를 재정비하여 파견하였다.

여수에 대한 공격은 23일 오전 9시 30분에 부산에서 급파된 해군 LST 함의 선상 박격포사격과 제5연대 1개 대대의 상륙작전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박격포사격의 부정확과 반란군의 완강한 저항으로 많은 사상자를 내자 오후에는 공격을 포기하였다. 24일의 제2차 공격은 송호성 사령관이 진두지휘하여 공격을 실시하였으나 반란군의 매복작전에 걸려들어 반란군이 발사한 총탄에 송호성 사령관이 부상을 당했고, 동행했던 외국인 중군기사가 사망하여 실패하고 말았다. 육해군이 합동으로 여수에 상륙하려던 작전이 실패하자 일반 국민들은 새로운 의혹과 불안이 조성되었다. 이제 정부는 더 이상 반란을 진압할 능력을 상실한 것처럼 보였다. 여수탈환작전이 미평 전투부터 실패를 거듭함에 따라, 새로 출범한 제1공화국은 국내외에서 그 존립 자체를 의심받게 될 정도로 궁지에 몰렸고, 여수탈환은 초미의 정치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러나 정부당국은, 23일 공보차장이 다음과 같이 여순사건의 진압상황을 발표하여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했다.

여수시는 23일 상오 8시 30분에, 순천은 동 6시 30분에 각각 완전히 정부군이 탈환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퇴산 중인 반란군은 광양과 보성 등지로 몰리고 있다고 하나 일량 일종으로 완전히 점멸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지방에서까지 비상경계를 펴고 있었고 서울의 수도청에서는 지난 20일 오후 6시부터 전래에 없는 삼엄한 청정 비상경계를 실시하였다.

국방부에서도 23일 오전 10시 여수·순천 방면 사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첫째, 22일 하오 4시 30분 제5여단장 김백일 중령 휘하 정예부대는 순천을 완전 점령하여 목하 사태를 수습 중에 있으며 순천에는 질서회복 중에 있다. 전과는 폭도 약 600여 명을 수용하였다.

둘째, 여수는 22일 상오 3시 30분 탈환하였다는 정보가 입수되었다.

셋째, 여수·순천의 포위망을 탈출한 반란군은 보성에 약 200여 명, 광양에 약 400여 명 방황하고 있는데 국군은 이를 포착하고 격파 중에 있다.

넷째, 전주~순천간 철도는 반란군의 복진을 저지하기 위하여 파괴하였는데 반란군 봉쇄작전이 완성된 후 복구 개통케 되었다.

다섯째, 항공대는 반란군의 정찰수색과 귀순 권고문 살포 등으로 활약 중인데 그 공적은 지대한 것이다.
여섯째, 해군 함정은 전남지구 해안선 일대를 봉쇄하였다.⁸⁾

이러한 상황에서 진압군사령부는 여수를 탈환하는 데 역량을 총집중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25일 반군
토벌사령부에서는 광양 방면에서 폭동군 주력을 추격하고 있던 당시 최정예부대인 제12연대

8) 『황주신보』 1948. 10. 24.

2개 대대를 여수탈환작전에 전용시키기로 하였다. 그 결과 광양과 순천 인근의 산악지역에서 김지회 등이 지휘하는 주력부대는 진압군의 추격을 따돌리고 섬진강을 건너 백운산과 지리산으로 입산함으로써 장기적인 유격전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24일 밤 여수반도의 반란군 주력 일부는 미평전투의 패배로 여수반도의 진압군 포위망이 무너진 틈을 타서 지리산과 벌교 방면으로 탈출하였다. 여수읍은 제14연대 반란군 일부 약 200여 명, 무장좌익세력 약 1,000여 명의 좌익청년·학생·노동자 등이 방어하였다.

한편 24일까지 다른 지역 진압상황은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었다. 보성 방면은 24일 12시 30분 제4연대와 수도경찰대에게 진압되었으며, 벌교 방면은 제6연대와 제3연대에게 13시 50분경 탈환되었다. 고흥 방면은 25일 오전 9시경 보성과 벌교 방면에서 진압군이 들어와 반란군을 섬멸함으로써 25일 10시 탈환되었다.⁹⁾

광양은 24일 17시 20분 제12연대와 제4연대에게 탈환되었다. 한편 이승만 대통령은 직접 여순사건에 대해 여순지구의 국민들에게는 경고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다른 지역의 국민들에게는 해명한다는 생각으로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이 지하에 정당을 부식해서 내란을 일으켜 전역을 혼란에 빠트리고 남북을 공산주의국으로 타국의 부속을 만들려는 계획이 오래 전부터 농후해가는 것을 세인이 아는 바이다. 불행히 몸에 천진한 분자들이 혹은 국군의 혹은 어떤 단체에서 거쳐(?) 반란을 빚어내고 있다가 정부를 기만하고 국권을 말살하려는 음모로 여수·순천 등지에 반란을 일으키고 있으나 국군의 결사적 전투공세로 반도들을 진압해가고 있다. 그러나 극소수의 잔존한 반도들이 혹은 도망하여 숨어 있는 도당을 피어서 방화와 약탈을 강행하여 치안을 방해할 터이니 방위상태의 방책을 취하지 않고는 후환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정부에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여 치안을 유지하여 인명을 보호할 것이다. 각 지방 남녀노소는 질서와 안녕을 범하는 자가 없도록 조직적 행동을 해주기를 경고하는 바이다.¹⁰⁾

제3차 여수탈환작전은 25일 아침 550명의 병력으로 재개되었다. 진압군은 박격포사격의 지원을 받으며 공격을 시작하자 여수를 방어하고 있던 1,000여 명의 반란군들은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이미 반란군의 주력부대는 여수반도를 빠져나와 산악지역과 백운산지역으로 피해버린 상황이었다. 따라서 진압군은 강력한 저항을 받지 않으면서 오후 늦게 여수읍 외곽고지를 점령할 수 있었으며, 장갑차를 앞세움으로써 반란군이 치열하게 저항하였지만 여수읍까지 진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날이 어두워지자 진압군은 곧 철수하였고 외곽고지는 다시 반란군에게 재점령되었다.

이때 진압군이 철수한 상세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대체로, 첫째 전날의 병력손실에 덧붙여 아직 병력증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둘째 진압군이 진군 도중 촌락마다 수색해야 할 정도로 다른 지방에 비해 좌익동조세력이 광범위했다는 점, 셋째 배수진을 친 폭동군의 저항이 결사적이었고, 넷째 전날과 같은 매복기습을 염려했다는 점 때문인 것 같다.

최후의 본격적인 여수탈환작전은 26일 정오경 광양에서 전용한 제12연대 2개 대대, 순천경비 중이던 제4연대 일부병력, 제3연대 1개 대대, 제2연대 1개 대대, LST에 승선 중이던 제5연대 1개 대대, 장갑차부대, 경찰지원부대, L-4 항공기 10대, 진해에서 급파된 충무공호를 비롯한 6정의 경비정이 여수반도를 포위한 가운데 개시되었다.

장갑차부대를 선두로 제12연대 2개 대대가 주공이 되어 시가지 동쪽을, 제3연대 1개 대대는 옹호부대로서 종교산을, 제2연대 1개 대대는 예비대로서 해안 방면을 경계하면서 시가지로 진격하였다. 당시 호남지구 전투사령부의 발표에 따르면 여수에는 반란병사 200여 명, 민간무장폭도 1,000여 명, 동조세력까지 합쳐 총 1만 2,000여 명이 진압군에 대항하고 있었다 한다.

15시경 구봉산·장군산·종교산 등지의 외곽고지를 장악하자 진압군은 곧이어 시가지에 대한 박격포

9) 『황주신보』 1948. 10. 31.

10) 『황주신보』 1948. 10. 26.

사격을 고지와 바다에서 개시하였다. 이 박격포사격으로 진압군의 일부가 살상되기도 했으며, 여수읍 서동과 교동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주택가로 번져 여수시가지는 잿더미로 변하였다.

박격포사격에 이어 제12연대는 장갑차를 선두로 시내에 돌입하였고, 제2연대와 제3연대는 여수읍을 압축하면서 민가를 닥치는 대로 수색하였다. 진압군은 대대별로 소탕전을 전개하여 시민들을 서국민학교, 혹은 진남관 같은 공공시설 등으로 집결시키면서 소탕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시내에는 아직까지 폭동군 동조세력이 적잖게 존재하여, 반란병사 1명이 민간폭동군 10~20명을 지휘하는 식으로 매우 조직적이고 결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었으므로, 밤이 되자 진압군은 소탕전을 중지하고 본부를 서국민학교에 두고 지역경계에 들어갔다. 이때 반란군 일부와 여수 좌익지도자는 미평 쪽으로 퇴각했다.

27일 새벽 12량의 장갑차를 선두로 진압군은 여수읍 한복판에 위치한 이른바 인민군사령부를 향하여 4방면에서 포위 공격을 개시했다. 한편 아직 부두에서는 여전히 반란군의 저항이 치열하여 제5연대가 승선한 LST가 상륙을 못 하고 있었으며, 제5연대는 작전상륙을 위해 81mm 박격포 2문을 갑판 위에 설치해 놓고 사격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갑판의 반동으로 탄착점이 형성되지 않아 여수읍을 더욱 초토화했을 뿐만 아니라 진압군의 사상자까지도 내게 되었다. 결국 제5연대는 진압이 완료된 후 무혈상륙을 하게 되었다.

반란군은 진압군의 공격으로 읍사무소 자리에 설치되어 있던 인민위원회 보안서 쪽으로 물리면서도 저항을 계속하여 중앙동, 교동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백인엽 소령이 지휘하는 제12연대는 반란의 진원지인 제14연대 병영으로 돌입하였다. 15시 30분경 시내가 점령되고 18시 소탕전이 완료됨으로써 여수는 완전히 재탈환되었다.

진압군은 여수시에서 10여 명의 반란병사와 민간폭동군 500여 명을 체포하였고, 여수를 마지막으로 여순사건 진압은 일단락되었다. 경찰은 보성 24일 14시, 별교 25일 오전 10시, 고흥 25일 오전 10시, 광양 26일 19시, 구례 27일 14시, 여수 28일 오전 8시에 각각 업무를 재개할 수 있었다.

진압을 하는 중간단계에 김백일 여순지구 토벌사령관은 다음과 같이 여순사건의 진압성공을 발표하였다.

김백일 작전 지휘사령관 발표

순천지구 전투를 개시. 동 4시 30분경 적의 병력 1,000에 대하여 아방은 600의 병력으로 순천 시내에 돌입. 당시 적의 주력은 순천에 없었고 그 중 일부는 보성·광양에 있었는데 총병력은 반란군 1,500명 일반폭도 500명, 총 2,000여 명 정도였다. 순천에 진입한 최선봉부대는 백인엽 소령이 지휘하는 군산 제12연대의 약 2개 대대 600여 명의 병력이었는데 본관도 동시에 진입하였다. 전투에서 적 사망 100여 명, 포로 200여 명, 총기 150에 달하였다. 그리고 아방에도 귀중한 전사 3, 부상 7의 손해. 한편 동일 4시 30분경 남원으로부터 송석하 소령이 지휘하는 제3연대 1개 대대도 순천에 돌입하여 전투는 계속되었으나 밤이 되어 시내 소탕전은 중지하고 순천 북방 출입구를 점령한 채 200~300m를 사이에 두고 적군과 대치.

23일 오후 7시 아군은 순천 주위의 산과 적의 사령부로 되어 있는 동순천역을 일시에 포위 섬멸하고자 돌격하였다. 그때까지 적은 퇴각하지 않고 모략 선전으로 아군의 반란을 유혹코자 노력하였으나 제3, 제12연대 장병의 사기는 더욱 왕성하여 모략 선전에 오히려 분개하고 일층 적개심을 높게 하였다. 총공격 개시 후 시가전을 전개하였는데 반군 외에 무기를 소지한 적의 치안대 학생 민예청원들도 대항하였으므로 가가호호를 수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리하여 오전 11시경 순천 시내를 완전히 탈환하였는데 적의 일부는 포위망을 일탈하여 광양 방면으로 퇴각하였다. 그러나 본관은 미리서 그것을 예상하고 이정일 중령이 지휘하는 광주 4연대 1개 대대를 광양에 배치, 공격하여 적의 일부는 하동으로, 일부는 해안선으로 도망갔다. 이 전투에서는 일대 시가전과 혼전을 전개하였는데 이때부터 적은 상호 연락을 잃고 혼란상태에 빠져 그들은 하동으로부터 분산하고 순천·구례·하동 간의 삼각지대에 있는 백운산 방면으로 다시 도주하였다. 적군의 수괴 김지희 중위(23세)는 현재 백운산에 잠복하고 있다. 동일의 전과는 포로 300, 총기 300에 달하였다.

24일 백운산 방면에 도주한 적의 주력을 포착코자 여수 공격을 일시 중지한 아군은 적을 탐색하여 동일 저녁까지 포위태세를 완료하고 포위권 내에 있는 적군에 대하여 25일 오후 소탕전을 개시한다. 별양·보성 방면의 적은 약 300

인데 그 중 100은 별교에 있다 한다. 24일에는 이 적에 대하여 우경으로 제3연대 3개 중대, 좌편에 제6연대 일부가 진격하여 오전 11시 별교도 완전 탈환하였으며, 이에 앞서 보성은 23일 밤 광주부대가 점령하고 보성·별교 간의 연락을 완결하였다. 이 전투에서 300의 적병을 포로로 하였으며 적은 현재 300~500 정도이다. 현재까지의 총전적은 적병 800을 포로로 하였고 죽은 적의 총병력은 800, 일반폭도가 수천이다. 무기노획은 포로수와 동일하고 소총경기는 대부분 탈환하였다. 현재 백운산의 적은 식량 부족으로 기진맥진하여 총기를 버리고 방황하고 있는데 이로써 본 작전은 대개 일단락되었다. 따라서 하동 방면 적군의 투항은 목전에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아군의 손해는 전사 10, 부상 30명이고 적이 살상한 양민의 수는 300~500 정도로 추상된다.¹¹⁾

그러나 무장반란군은 진압군에 사살, 체포되기도 하였지만 주력부대는 지리산 방면으로, 나머지는 주변 산악지대로 도주해서 유격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광양 방면의 반란군은 지리산 방면으로, 순천·별교·보성·고흥·여수 방면 주력부대는 산악지대 및 해안지방으로 도주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순 지역에 국한해서 선포했던 계엄령을 11월 1일을 기해 전남북 일원으로 확대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군정보고서에서는 11월 16일 현재 여순지구 무장반란군이 백운산 방면에 350명, 별교 200명, 고흥 150명, 보성 300명 정도가 산재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단선단정 반대투쟁과정에서 입산한 유격대와 합류해 군경우익요인에 대한 습격을 계속 전개하였으며, 1949년 초순에 들어서는 군경의 추격으로 점차 소규모로 되어 진도와 무안 등의 섬지방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전남 일원에서 출몰하고 있었다.

진압작전을 전반적으로 평가해볼 때 미군사고문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창군된 지 얼마 안 되는 경비대는 군장비 특히 통신장비의 부족, 부대전투능력의 부족, 유능한 지휘관의 부족, 부대 간의 협동작전의 부족, 부대 내의 좌익침투, 장교와 사병 간의 일체감 부족 등에도 불구하고 미군사고문관의 작전지원과 장비지원에 힘입어 여순사건을 그나마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었다.¹²⁾ 그러나 경비대의 이념적·조직적 취약성, 제1공화국의 정치적 취약성은 결국 반군 주력이 지리산으로 도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격전구를 마련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군은 여순사건을 통해 대규모 군사훈련 이상 가는 실전경험을 쌓게 되었으며, 동시에 사건 직후 계속된 숙군작업으로 이념적·조직적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11) 『황주신보』 1948. 10. 27.

12) 존 메릴, 앞의 책, 207쪽.

